



체동)이 한자리에 모여 즐기는 천렵대동 놀이라든가 백중을 중심으로 씨름대회, 겨울철 척사대회 때면 의례히 풍물놀이가 벌어지며 여기에 맞춰 춤추며 소리하고 즐거운 余興이 벌어진다.

그러나 庶民 大衆들이 즐기던 이러한 民俗놀이가 자취를 감춘것은 約 40余年이 훨씬 넘으나 아직도 長位洞쪽에선 일년에 한번 여름철이면 大同 契契員들이 모여 노인들을 모시고 천렵을 하며 풍물을 치고 춤을 추며 즐기는 모습을 간간히 볼수 있다.

이러한 서울지방 풍물놀이나 芸能을 보면 多樣性이 적으며 곳거리 장단으로 單調롭게 시작되나 나름대로 흥두깨춤, 무동춤, 꿈새춤 등은 觀客에게 많은 好感을 주며 즐기는 民俗놀이 이다.



서울특별시 地方有形文化財 第15號 先農壇



天然記念物 第240号 先農壇 香나무

차 례

- ◎ 모심기소리 및 논매기소리
- ◎ 아낙네 호미춤 (보리밭 매기)
- ◎ 끝새 춤
- ◎ 흥두깨 춤 (마을 노인들)
- ◎ 무 동
- ◎ 대동 풍물놀이



만든 사람들

총 지휘 : 구 자 윤
 고 증 : 박 해 일
 농요지도 : 박 상 흥

나오는 사람들

기 수 : 강한용 (62)	조일만 (67) 이학득 (47) 백영춘 (34)
상 쇠 : 진명환 (32)	박상옥 (31)
징 : 남기환 (38)	모 개 비 : 김문복 (34)
장 고 : 김재원 (56)	꿈 새 춤 : 김재원 (56) 박계순 (46)
북 : 박용태 (36)	홍두깨춤 : 박상흥 (58) 염귀남 (66) 이명신 (65)
제 금 : 박상옥 (31) 정왕근 (40)	조일만 (67) 이형식 김문복 (34)
호 적 : 신춘성 (67) 김상봉 (35)	아 낙 네 : 박계순 (46) 허연심 (34)
무 동 : 김재원 (56) 나명숙 ()	아낙호미춤 : 손정순 (46) 허연심 (34) 김정자 (28)
무 동 : 남기환 (38) 박준환 (9)	김경진 (21) 차여옥 (21) 장춘옥 (43)
농 요 : 박상흥 (58) 염귀남 (66) 이명신 (65)	윤효숙 (24) 차문애 (19) 김경희 (23)

풀 이

모심기소리 및 논매기소리

농사철에 모를 심거나 논을 맬때는 의례 어려움을 잊고 능률을 올리기 위하여 목청이 좋은 한사람이 소리를 매기면 나머지 사람들이 소리를 받으면서 어른들께 공경하고 아랫사람에게 인자하며 부모에게 효도 하고 이웃간에 우애를 다지는 노래를 부른다.

아낙 호미춤

농사철이 되면 남,녀 노소가 다같이 농사짓는데 분주하다.

아낙네들도 호미를 들고 보리밭매기, 콩밭, 배추밭, 무밭등을 손수매며 남정네 못지않게 농사일에 전념한다.

밭을 매며 콧노래를 부르고 어깨춤을 추며 어려움을 잊는 아낙네들이 추는 즉흥 춤이다.

꼭새춤

원래 꼭새가 아닌 사람이 놀다가 흥이 나면 구경꾼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등에다 술바가지나 그릇등을 집어 넣어 꼭추 모양을 하고 추는 춤이다.

홍두깨춤

이 춤은 무슨 내용이 담겨서 홍두깨 춤이라 한것은 아니다. 다만 옛날 한복을 입던시절 우리 가정에서는 무명 및 필목을 빨면 다듬이질을 하게 마련인데 여기에 마지막 과정이 홍두깨에 옷감이나 옷가지를 뜯어 뺀것을 돌돌 말아 감아서 홍두깨 틀에다 얹어놓고 방망이로 두드린다.

이 홍두깨 나무는 둥글며 나무가 단단하고 뾰뾰하다.

춤에 경험이 없는 서민들이 풍악소리에 도취되어 자기도 모르게 팔을 벌리고 춤을 추면 팔과 다리가 뾰뾰하니 사람들은 이를 가리켜 홍두깨 춤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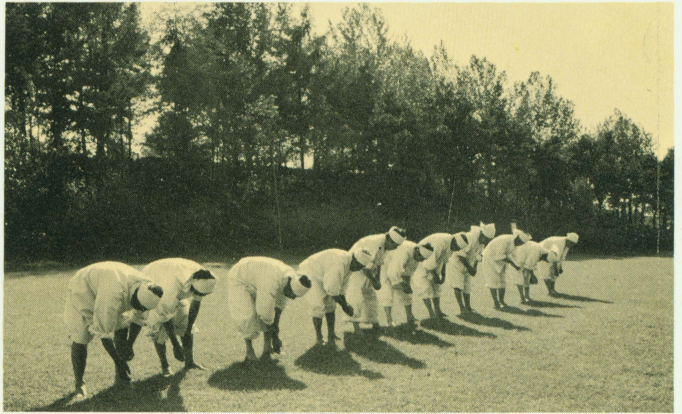
무 동

풍년이 든다던지 대동계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의례 막걸리를 마시고 풍악을 울리며 갖가지 춤과 노래를 부르면서 즐기는데 그곳에 구경삼아 모여든 사람중에 어린아이를 골라 어깨에 태우고 동실 동실 추는 춤이다.



대동풍물놀이

여러가지 춤과 소리등 놀이가 끝나면 젊은이들은 동리어른들께 술과 음식을 대접한다. 이때 대동사람들은 노.소가 어울려 풍물을 치며 춤과 노래로 즐기고 앞날의 부락발전과 협동정신을 다지면서 마을을 향하여 길놀이 (길굿) 가락에 맞추어 춤을 추며 들어온다.



가 사

모심기 소리

(맥임) 하나로 구나 하나인데 하나만 하고도 둘이로다

(받음) 하나로 구나 하나인데 하나만 하고도 둘이로다

(맥임) 둘이로구나 둘인데 둘만 하고도 셋이라

셋이로 구나 셋인데 셋만 하고도 넷이라

넷이로 구나 넷인데 넷가운데 다섯

다섯이로 구나 다섯인데 다섯만 하고도 여섯

여섯이로 구나 여섯인데 여섯만 하고도 일곱

일곱이로구나 일곱인데 일곱만 하고도 여덟

여덟이로구나 여덟인데 여덟가운데 아홉

아홉이로구나 아홉인데 아홉하고도 열

열이로구나 열인데 열만 하고도 새로 하나

논매기소리

(맥임) 워~호~호~워~호~워호라

이논배미 물결이 좋아

(받음) 워~호~호~워~호~워호라

이논배미 물결이 좋아

(맥임) 삼천가지 벌었으니

삼천석이 나고 보면

나라 봉양하여 보세

나라 봉양하고 나면

부모 봉양하여 보세

부모 봉양하고 남건

형제 봉양하여 보세

일락 서산에 해 떨어지고

월출 동력에 달 돋으니

다 되가네 다 되가네

서마지기 논배미에

삼천석을 소출하세